

# 아는 것이 힘!

## 1. 먼저 고사리 손을 가진 어린이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등교길부터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처할 안전감각 평소에 길러줘야"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스쿨존'도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변질됐다.

어린이 교통안전연구소에 따르면 1995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생긴지 5년이 넘었으나 규칙에 맞게 스쿨존이 운영되는 곳은 극히 드물며, 서울시도 스쿨존의 관리 기관이 경찰서와 자치단체로 나눠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된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교하는 자녀를 직접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이 많고, 등교시간에 녹색어머니들의 활약이 많은 것은 아닐지.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UNICEF)의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1~14세)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4~5배 가량 높은데, 부끄럽게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1999년 사고로 숨진 어린이 1,467명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97명으로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전체사고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도 '99년 보행 중 사망률이 71%로 스웨덴 13%, 네덜란드 18%에 비해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운전시 고려해야 할 어린이 행동 특성

6~11세의 교통사고 사망 어린이의 80%가 도로횡단 등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한다. 사고는 보통 등학교길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오후 2~7시 사이의 학교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또 어릴수록 집 가까이에서의 사고가 많다. 특히 주차 차량의 앞 뒤에 붙어 길을 건넌다가 사고를 당하는 어린이가 많다. 키가 작고 걸음이 느린 어린이가 차의 앞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골목길에서 공놀이 등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도 사고위험이 높다.

어린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대처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진 다. 더욱이 어린이들의 생각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교통 법규와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어린이 행동 특성을 고려해서 운전해야 한다.

◆ 어린이는 키가 작아 눈 높이가 낮기 때문에 차 너머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 사고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멈춰있는 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대비해야 한다.

◆ 어린이는 자동차의 접근에 당황하거나 경음기 소리에 놀라 아무 곳으로 뛰는 등 돌발 행동을 한다. 그

러므로 운전자는 어린이에게 혼내 주고 경음기를 눌러대며 주의를 주기보다는 어린이에 우선권을 주고 보호하는 자세로 운전해야 한다.

◆ 어린이는 주위의 사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자기 중심으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럭비공이 튀는 방향을 예측하듯이 미리 대처해야 한다.

◆ 성인의 시야는 수직 방향으로 120도, 수평 방향으로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어린이들의 생각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교통 법규와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한다.

# 출동! 출동! 차량 안전사고 예방

150도 이지만 어린이는 그 범위가 각각 70도, 90도로 좁으므로 눈을 통해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자동차를 보고 피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 어린이는 자동차의 접근 속도와 자동차의 거리에 대한 감각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가 오는 것을 보고 충분히 길을 건널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길을 건너지만 교통 사고로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

◆ 어린이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놀다가 공이나 풍선 등 놀이감이 차도로 들어갈 때, 슬래에게 쫓겨 달아날 때, 그리고 길 건너편에서 친구가 부르거나 어머니가 있을 경우에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도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린이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한다.

〈 교통안전공단 자료 〉

## ◎ 교통사고 감소방안

-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지역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어느 실험에서 보면, 시속 20마일(32키로)의 속도 제한을 도입한 결과, 어린이 보행자의 경우, 상해율이 70% 감소하였고, 자전거 이용 어린이의 경우,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코틀랜드 등의 지역에서는 어린이용 안전석(차량설치)의 적절한 사용은 상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에서 연구 결과, 어린이 안전석 사용은 차량 상해시, 부상 발생을 3분의 2 정도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 테네시 주에서는 어린이 안전석 사용을 위한 4가지의 규제 하에 어린이 사망률이 50% 이상 떨어졌다.

- “빨리해라”라고 재촉하는 부모님의 빨리빨리 병을 없애자. 어린이는 행동특성상 항상 조급한 성격을 띠며 찾길에 위험하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무조건 뛰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급성을 부모님이 오히려 부추기는 행태가 바로 “빨리해라”, “빨리 갔다와라”라고 재촉하는 빨리빨리 병이다. 현재 보행 중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80~90% 이상이 뛰어가다 나는 사고임을 감안하여 도로를 건널 때는 항상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걷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여유로운 운전습관이 아닐까.

## 2. 어른들의 운전 에 관한 이야기

방어 운전, 음주 운전, 판짓 운전, 장마철 빗길 안전 운전, 장마철 자동차관리...

〈급행들 조작성 하지 않아야〉 〈감속 운전이 최고의 안전 운전〉 〈빗길에서 타이어의 공기압은 규정대로〉 〈안전에의 의식: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뿌리 박힌 신중성, 상호성, 자주성〉 〈피로와 운전행위〉 〈도로 구조를 고려한 운전 - 커브 길에서의 운전〉 〈교차로에서의 운전〉 〈‘노면조건’을 고려한 운전〉 〈어린이 행동 특성을 조금이라도 고려해야!〉

- 1) 추축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2) 언제든지 정지할 준비 태세를 갖춘다.
- 3) 교차로 사고의 대부분은 신호가 바뀌는 순간 발생하므로, 반대편 도로 교통 전반을 살피면서 1~2초 정도 늦게 서서히 출발한다.


## ◎ 휴가철 자동차 관리

이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길이 되시길...

### ○ 출발 전 자동차 점검 계획

더위를 피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산과 바다를 찾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도 더위를 탄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자동차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다.

- 냉각 장치 점검, - 와이퍼 점검, - 연료 장치 점검
- 제동 장치 점검, - 냉방 장치 점검,
- 동력 전달 장치 점검, - 각종 벨트의 상태 점검,
- 휴대폰 점검

○ 이렇게 차와 운전 에 대한 기록과 이야기 속에는 희망과 우려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 그래서 더욱 암기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건사고를 끝 잇는 것일까. 한번 쬐은 사고와 접하고 아니면 아찔했던 순간을 더듬어 두루 살펴 여유롭게 양보하고 운전하는 엄마, 아빠, 언니, 형이 되자. 

지 명 천 (강서구 소방서 홍보실장)